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1호 【루계 제25119호】 주체104(2015)년 12월 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인민사랑,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지론이고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관통하는 근본핵이다.

피눈물의 12월의 그날로부터 네번째 년륜이 새겨지고있는 오늘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며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끓이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장구한 혼연일체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과도 같이 깡그리 불태워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야말로 인민이라는 두 글자로 빛나는 인민사랑의 한평생이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총진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도덕의리의 총진군, 총정의 대진군으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고 근로하는 인민들속에서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간직하시고 그것을 혁명령도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시였다. 령도자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지닐수 있는 사상정신적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의 리념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기초였고 출발점이였다. 장군님의 사상도 인민을 위한것이고 장군님의 정치도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이며 장군님의 풍모도 고결한 인민적풍모로 빛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업적인가 하는것을 날이 갈수록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신 불굴의 혁명가의 한평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는것은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최대의 사명이였다. 우리 인민의 높은 존엄과 영예, 이 땅의 모든 귀중한 재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을 바쳐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되였고 국가정권도 인민의 복무자,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되였으며 군대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으로 자랑떨쳐왔다. 그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된것은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떳떳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 자주적존엄과 참다운 삶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강의한 의지와 희생적인 헌신으로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조국수호의 전초선들과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 우리 조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무적의 총대로 민족만대의 운명을 수호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인민사랑의 최대의 공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평생이다.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불보다 더 뜨겁고 강렬하였으며 흰눈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하였다. 우리 인민을 행복하고 문명한 인민으로 되게 하려는 숭고한 리상, 인민의 충직한 아들로 한생을 빛내이려는 무한한 헌신성,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에 관통된 지향이고 고결한 풍모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하여 강행군의 한생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강행군은 천리를 주름잡아 달리시는 빨찌산식강행군이였고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폭잠과 꿰기밥을 드시면서 그 어디에나 다 찾아가시는 헌신적인 강행군이였으며 삼복철무더위도, 대소한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신 초강도강행군이였다. 력사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불철주야로 헌신분투하며 명절날, 휴식일, 생신날이 따로없이 강행군길에 계시고 인민행렬차에서 순직하신 우리 장군님과 같은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사업을 이끄시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세계는 참다운 애국자, 친근한 어버이만이 지닐수 있는 인민사랑의 최고정화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희한한 시대를 안아온 원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최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져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게 되였으며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당이 어머니의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보살피고 인민이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 충복이 되여 뛰고 또 뛰는것이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이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일관된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은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세기적인 승리와 변혁을 이룩하신 절세위인의 한평생이다.

믿음을 떠나서 사랑과 헌신이 있을수 없고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서만 참답고 열렬한 사랑, 자기를 기꺼이 바치는 헌신도 나올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의 철학이다.

믿음은 단결이고 승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다고 하시며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인민들에게 끊임없는 사상정신적량식을 주시며 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오신 성스러운 로정에도 어려있고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시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신 불멸의 행로에도 비껴있다. 애민헌신의 숭고한 서사시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꾸시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다계단으로 뻗어나는 강성번영의 장엄한 승리의 력사를 새겨오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우리 청춘들이 열렬한 애국자로, 시대를 진감시키는 영웅으로 자라나게 한 자양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부강조국건설의 중대한 일감들을 통채로 맡겨주시고 시대의 기수, 창조와 건설의 거인으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정치에 의하여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자라나고 우리 조국은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꽃꽃이 이어지고있다.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사랑하는 우리 인민이 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시고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며 천만군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은 조국의 최대열점지역에도,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으로 펼쳐진 거리들과 유원지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를 격동시키는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끊임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서 끝없이 창창한 선군조선의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키워주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며 장군님과 영원한 혈연적뉴대를 이루고 살며 투쟁하는 장군님의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단위들을 더 잘 꾸리며 모든것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귀중히 여기고 후손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은 우리 모두의 심장속에 쪼아박아야 할 절대불변의 신조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우리 당의 인민관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인민사랑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숨결을 같이하고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원수님의 제일동지, 제일전우가 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을 안고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중의 유훈이며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다. 모든 당원들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이 오늘날 우리 당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임무라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불리한 어황조건과 일기조건에서도 바다를 비우지 않고 어로전투를 결사적으로 벌려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당원들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농산과 축산, 수산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버섯, 온실남새생산을 활성화하며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함으로써 당정책의 정당성이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당원증의 무게를 언제나 가슴깊이 자각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헌신분투함으로써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떳떳이 맞이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누구나 오늘의 투쟁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며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당정치사업방법을 따라배워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이 실현된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몽골민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울란바따르

몽골민주당 중앙집행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몽골민주당창건 15돐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집행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좋게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12월 6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 영국위원회가 11월 14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록스가, 부위원장으로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이, 서기장으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마이클 챤트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토론회,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남아프리카 위원회결성식이 11월 14일에 진행되였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켈레 마주바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결성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18일 끼르기즈스딴 비슈께크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 아. 우쑤쁘바예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19일 벨라루씨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상무위원회 위원장 엘. 슈꼴리니꼬브가 선출되였다.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련맹과 련맹공산당을 위하여》전국사회련합, 《조국과 쓰딸린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 정의를 위하여》사회련합을 비롯한 정당, 단체의 각계 인사들이 회고위원회에 망라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을 맞으며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이딸리아위원회가 11월 19일 로마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인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이딸리아위원회 위원장 미리암 뻴레그리니 페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홍건도간석지 3호제방확장성토공사 힘있게 추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이 홍건도간석지 3호제방확장성토공사와 장석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홍건도간석지마감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3호제방확장성토공사를 50%이상 해제끼고 1만여㎡의 장석공사를 진행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몇달동안에 3호제방확장성토공사와 장석공사를 끝내며 배수문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에서는 3호제방확장성토공사와 장석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사업소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도록 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3호제방이 뻗어나간 안산지구의 대삼곶도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다사, 보산,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주택건설사업소, 부재공장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3호제방보조뚝쌓기와 장석공사 등 맡은 공사과제를 매일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다사기계화사업소의 운전사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열의를 안고 굴착기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막돌과 흙을 제때에 보장하여 제방확장성토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투쟁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3호제방확장성토공사장에 뛰여들어 매일 맡은 공사과제를 15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선천군 석화지구에서 3호제방확장성토공사를 내밀고있는 석화, 곽산,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전투원들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면서 발파소리높이 제방확장성토공사와 장석쌓기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특히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전투원들은 굴착기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에 대한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리정비를 짜고들면서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막돌과 흙을 실어나르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는 련합기업소간석지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3호제방확장성토공사와 장석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으며 전투장에서는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일 불같은 열의를 안고 불리한 조건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이겨내며 3호제방확장성토공사와 장석공사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간석지건설지도국에서는 홍건도간석지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사명감을 안고 계획화사업과 자재보장,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면서 간석지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국가검열위원회 책임일군들은 홍건도간석지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전투장에 나가 간석지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홍준철, 리광호동무를 비롯한 위원회일군들은 전투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연유와 세멘트, 화공품을 비롯한 공사자재들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자재소비기준을 극력 낮추어 공사를 내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전투현장에 자주 나가 홍건도간석지건설과 관련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강재보장과 배수문설비제작을 도와주도록 밀어주고있다.

도검찰소, 도인민보안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봉화화학공장, 동림광산기계공장,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룡천광산기계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도 홍건도간석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있다.

간석지건설지도국 간석지설계연구소와 국가과학원 수리해양분원 간석지연구소, 함흥수리동력대학을 비롯한 련관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현지에서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들이대는 한편 단계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온 공사장에 혁신과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위원회에서는 련합기업소 산하단위의 모든 당, 행정, 기술일군들이 전투장들을 타고앉아 걸린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3호제방확장성토공사와 장석공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불같은 열의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 련관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홍건도간석지건설장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정 론

인민의 꿈이 이루어진다

1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있다.

땅을 봐도 좋고 강을 봐도, 하늘을 봐도 좋다.

천험의 산발을 다스린 마식령에 스키바람이 일 때 미림의 승마주로에서는 남녀로소 가림없이 기쁨의 말갈기 날리며 경쾌히 경주한다. 눈부신 금방석거리들에 가면 평범한 로동자, 과학자들이 꿈같은 새살림을 폈고 수도 평양과 항구도시 원산에 솟은 아이들의 궁전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웃음을 호합지게 터친다.

행복의 무아경 펼친 문수의 최상급물놀이에 취해볼가, 릉라도의 유희기구에 몸을 실어볼가, 사계절 녹지 않는 인민야외빙상장도 언제나 문을 열어 인민을 부른다.

어찌 땅우에만이랴.

문명의 향기는 물우에도 풍겨 어제는 상상을 깨치며 락원의 강물우에 공연무대가 펼쳐지더니 오늘은 대대로 꿈과 리상을 실어보던 무지개가 늠실대는 대동강꽃물결우에 행복의 배가 되여 두둥실 떴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땅속에는 우리의 멋쟁이지하전동차…

그야말로 향유의 높이가 달라지고 행복을 재는 시간이 달라졌다. 1년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높아가는 이 시대의 가슴벅찬 문명의 숨결을 한가슴에 안아보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그 얼마나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던가.

조선의 문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우리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여야 한다고 보다 원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신 절세위인의 크나큰 웅지는 이 시대를 또 한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령역에서 세계적수준을 압도할수 있다는 신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하여야 합니다.》

위인만이 번영하는 시대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알수 있고 생동하게 명명할수 있다.

우리는 지금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는 시대, 세계를 굽어보며 비약해나가는 희한한 시대에 산다.

사회발전과 문화의 총체인 문명은 곧 그 시대의 얼굴, 국가의 징표이기도 하다. 인류사에 존재한 문명발전의 각이한 력사를 통해 한 나라, 한 민족의 지성과 국력, 향유의 높이를 가늠해보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명은 당대 사회의 발전면모를 비쳐주는 거울이고 꺼지지 않는 인류정신의 불길이며 력사의 친절한 안내자와도 같다.

장구한 인류문화사에 자기의 뚜렷한 이름을 남긴 문명국들에 이어 오늘날 지구상에는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최상의 문명, 최고의 수준! 여기에는 우리 식의 자부가 있고 긍지가 있다.

이것은 몇몇 부유한 계층을 위한 소수의 문화도 아니고 당대에 번쩍이다가 순간에 사라지는 한시절의 문명도 아니다.

우리의 문명은 전체 인민이 세계를 굽어보며 다같이 누리는 사회주의문명이고 인민의 요구와 리상, 우리의 자립적토대에 뿌리를 둔 조선식문명이며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완벽한 문명, 만년보증의 문명이다. 그것은 경제와 문화의 전반적부문을 포괄한 전면적개화이고 세월을 따라가는 문명이 아니라 남들의 열, 백걸음을 한달음에 따라잡는 초음속의 문명이다.

우리는 이미 그 시작을 본때있게 떼였고 향유의 맛을 단단히 보고있다.

눈부신 우리의 4년을 돌아본다.

릉라도에서 쑥섬까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문명지도는 건축으로부터 그려진듯 대동강기슭은 그대로 현대조선건축의 전시장이고 우리가 그려온 리상향의 축도이다.

초고층의 불야경을 자랑하는 창전거리며 하늘가에 머리를 든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살림집을 보면 우리가 도달한 건축의 높이, 우리 시대의 멋쟁이거리에 대한 표상을 생동히 안아볼수 있다. 릉라립체물동영화관이며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을 그쯘히 갖춘 옥류아동병원, 현대적인 류경구강병원, 새 모습으로 단장된 5월1일경기장을 라끕등어관과 엘도라도식물놀이로 흥성이는 문수물놀이장은 그것대로 풍만한 문화정서생활을 각 방면에서 마음껏 누리는 향유의 보금자리로 유명하다.

환상의 세계를 재현한듯 한 쑥섬의 과학기술전당이며 출석부와 병력서를 다같이 갖춘 옥류아동병원, 현대적인 류경구강병원, 새 모습으로 단장된 5월1일경기장을 돌아보느라면 과학과 교육, 보건, 체육 등 문화발전의 넓은 령역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꿈이 얼마나 높고 그를 위한 도약의 토대가 얼마나 그쯘히 갖추어졌는가를 알수 있다.

우리의 예술 또한 시대를 들썩하게 한다.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로 온 사회가 끓고 새로 출현한 멋쟁이악단들이 황홀하고 매력적인 선률로 흥하는 이 세월의 음향을 더해줄 때 대동강의 대형수상무대는 음악감상, 예술향유의 독특한 세계에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세기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를 날리며 금메달폭풍이 일고 숨죽었던 바다에서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이 이룩되는 황금해의 새 전설이 꽃펴났다. 원흥땅의 사과꽃바다, 락산만에 꼬리치는 대서양연어, 서해의 능금도에서 생산되게 될 첫갈가공제품… 그야말로 먹고 쓰고 살며 누리며 떨치는 모든것이 가슴벅차게 하는 문명개화의 일대 상승기이다.

흘러온 4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문화전성기를 위한 창조의 본보기들이 마련되고 그 경험이 축적된 자랑스러운 나날이였다.

이룩한 성과도 놀랍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그렇게도 빠른 속도로, 최고의 수준에서 이룩되였다는것을 우리자신도 믿기 어렵다.

멀리 돌아볼 필요가 없다. 기적으로 련일 흥성인 2015년의 날과 달이 파도쳐온다.

장천의 천지개벽이며 라선의 선경, 미래과학자거리의 자태는 그 속도와 질에 있어서 최상이다. 원산육아원, 애육원, 평양양로원… 경쟁하듯 다투며 일떠선 행복의 새 집들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졌다. 문명의 새옷을 떨쳐입은 조선의 첫 안내자인듯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황홀경으로 자기 모습을 일신할 때 내 조국의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경비행기의 비행운이 새겨진다. 그에 뒤질세라 조선의 땅속에서는 우리의 슬기와 땀이 스민 지하전동차가 자기의 첫 시범주행을 놓았으니 우리의 려객운수분야 역시 완전히 일신되고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비약이 아니란 말인가. 한 나라, 한 민족의 모양이 이처럼 순간에 달라질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확고히 문명의 상승궤도에 올라섰다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인민을 하늘높이 떠받든 조선로동당의 리상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리상의 표대이자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전망이다.

정치사상강국으로 존엄높고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그 미래가 굳건하고 창창한 이 땅, 여기에 인류가 리상해온 문명의 그 모든 황홀한 별들을 따다놓으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고 우리의 최후승리이다. 우리가 피땀을 다 바쳐 혁명을 하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붉은기를 놓지 않은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였다. 이제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달려온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부르면서 행복이 쏟아지는 최절정에로 올라서야 한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는 당의 구호는 조국이 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면적인 단계에 확고히 진입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총성이다.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우리 가슴 뜨겁다.

문명의 창조물들을 찾으실 때마다, 흥하는 조국에 변이 나는 경사가 날 때마다 우리 원수님 그리도 눈물겹게, 그리도 절절하게 터놓으시는 말씀,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것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것을 보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

바로 그랬다.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의 문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이였다.

우리 수령님 압록강가의 조약돌을 품에 안으시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다지시며 그려보신 조국땅이 바로 그것이였다. 수령님 품속에서 땅의 주인이 되고 글을 배운 강원도 산골마을의 한 소박한 농촌녀성이 전국에 문맹퇴치운동을 호소하던 해방후 그 나날로부터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떨고 참다운 문명의 첫걸음을 떼였다. 피로써 지킨 조국땅에 전설속의 천리마가 날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해주시고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그이께서 그리도 안타깝게 마음쓰신것이 인민의 행복이였다.

선군으로 지켜주신 이 땅에 만복의 씨앗을 뿌리시느라 언제 한번 강행군의 신들매를 풀지 못하신 우리 장군님, 그 불편하신 몸으로 인민을 150일전투에로 불러주시고 조국땅우에 번이 나는 해를 마련해주시며 앞장에서 쉼없이 달리고달리신 로고, 생각만 해도 가슴찢기는 12월의 마지막 기적소리야말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심장의 박동이고 그 강렬한 소원의 분출이 아니였던가. 황홀한 새 거리를 펼치면 또 뵈올가, 최첨단 새 공장을 세우면 또 뵈올가라는 사무치는 그리움의 노래에는 바로 이 땅에 휘황한 인민의 래일을 앞당겨주신 고마운 우리 장군님을 영원히 심장속에 모시고 살려는 인민의 간절한 열망이 깃들어있다.

인민의 최상의 문명, 인민의 만복창조야말로 한평생 인민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그분들의 한생의 념원을 꽃피우는 성스러운 수령영생위업이며 충정의 유훈관철전이다.

제국주의와의 마지막판가리결전도 여기서 벌어진다.

조선과 맞다든 모든 싸움에서 련전련패만을 거듭한 미제의 압살의 마수는 지금 우리의 생존공간을 파괴하고 문명을 말살하는데 총집중되고있다. 우리를 향해 쌓아놓은 부피두터운 제재의 목록들과 꾸며대고 외곡하는 그 저렬한 갖가지 선전과 모략들이 과연 무엇을 파녁으로 하고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찬란한 우리의 현실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의 최상의 문명을 이루고있으며 앞으로도 당당히 이룰것이다. 발전의 토대와 경험, 무궤한한 힘과 잠재력을 쌓은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승리와 문명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인류의 리상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조선에 있고 조선인민에게 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이는 나날이 젊어지는 우리 시대의 찬란한 전망이고 눈부신 채광이다. 바야흐로 도래할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봄우뢰이고 약동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필승의 기상이다.

2

우리는 지금 한상의 사진문헌을 마주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에 높이 모셔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이다.

아직은 사람들에게 표상조차 어설프던 전민학습의 전당을 몸소 구상하시고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태양의 그 모습이 어찌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것인가.

인민이 주인된 행복의 금방석과 우리 원수님 서계시는 힘한 건설장!

문명창조의 높은 고지를 련속 점령해가는 거창한 이 시대의 맨 앞장에 과연 어느분이 서계시는가를, 이 땅의 찬란한 미래가 어느분의 헌신과 로고에 받들려 마주오는가를 너무도 생생히, 가슴절게 새겨주는 력사의 산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인민의 첨단문명이 꽃피는 번영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

내 조국땅 어디서나 행복의 종소리처럼, 돌격의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이 메아리에 내 나라, 내 민족을 안아일으켜 인류문명의 상상봉에 제일먼저 올려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기상이 력력히 빛발친다.

조선이 높이 든 또 하나의 붉은기와도 같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스러운 리정표와도 같은 이 구호는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높은 자존심과 숭고한 리상의 거세찬 불길이다.

최상의것, 최고의것이 아니면 조선의것이 아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것이 아니다.

존엄높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마땅히 문명을 누려도 최상의 문명을 누려야 한다는것,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세계를 따라갈것이 아니라 도약하여 앞서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자존심이고 불같은 지향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문명개화는 원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와 같이 령토도 크지 않은 나라가, 제국주의의 악랄한 포위환속에서 문명국건설의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나라가 최상의 문명돌파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건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번영의 설계도는 결코 아득한 목표가 아니다.

그이를 우러르면 신심넘치고 가슴은 희망으로 설레인다.

천하를 굽어보는 빛나는 안광과 번뜩이는 슬기, 만물을 꿰뚫어보는 예지와 용암같은 열정…

그이는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고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황금열매 주렁지게 하시는 만능의 힘을 지닌분이시다. 인류문명의 최고체현자이신 그이의 심장에서 움튼 그 무수한 사색의 불꽃들이 그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채색하며 황홀하고 멋진 조선의 모습을 새로 그려놓았음을 우리는 너무도 생생히 체험하였다.

군사와 문학, 건축과 음악, 체육 등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 도통하신 그이의 비범한 령도는 이제 더욱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놓음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비약의 룡마가 있고 그분들께서 뿌려주신 만복의 씨앗들이 있기에 행복은 눈앞에 있다는 확신, 만능의 실력을 지니신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이 땅에서 인민의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런 민심, 이런 인민의 믿음이면 조선은 지구도 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는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에 불길치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

외우기조차 가슴벅찬 창조의 이 구호는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겠다는 멸사복무의 엄숙한 선서이고 심장으로 높이 추켜드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발이다.

최상의 문명!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을 단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문명일것이고 아름다운 그 꽃의 뿌리는 우리 원수님의 자아희생의 철학일것이다.

최상의 문명은 최대의 헌신을 요구한다.

어찌하여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험난한 고행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것인가. 그이께는 과연 무엇이 혁명가의 최대의 멋이고 락이였던가.

우리 원수님께는 인민이 하늘이고 국가이다. 인민의 모습이자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이기에 그이께서는 눈부신 향유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는것이고 인민이 누릴 향유물에 대하여 그토록 요구성을 높이시는것이다.

최고에 또 최고, 새것 또 새것,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세상을 둘러보면 문명국가로 자처하는 나라도 있고 호화생활을 뽐내는 부유층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번쩍거리는 그 문명의 세계에 절대다수의 인민은 단 한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한다. 부자들의 호화거리뒤에 평민들의 빈민거리가 있는것이 오늘날의 이른바 문명세계의 실상이다.

원래 인민과 문명은 불가분리의 말이다. 인민을 떠나 문명을 생각할수 없고 문명을 떠나 인민을 생각할수 없다. 문명의 제일창조자는 바로 인민인것으로 하여 마땅히 인민은 문명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하여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에게 최고의 존엄과 함께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있다.

최상의 문명을 누가 누리는가, 이것은 오늘날 해당 사회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자막대기이며 현실적인 기준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최상의 문명이 인민을 억누르고 깔보지만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이 그 문명에 받들리며 산다.

인민대중제일주의문명!

세상에 이런 문명은 없다.

이것은 오직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내 조국땅에서만 꽃필수 있다.

그이께 있어서 창조의 기준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인민의 생각과 인민의 요구, 인민의 꿈과 리상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절대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귀속말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래일의 원대한 구상에 담으신다. 경축행사장의 주석단에 붉은넥타이를 맨 아이들과 함께 앉으시여서는 그들이 자랑삼아 터치는 유희장이야기를 들으시며 더 멋진 문화휴식터에 대한 계획을 익히시고 궁전같은 원아들의 집마당에 조용히 들어서시여 시간이 가도록 아이들의 청맑은 노래소리를 서서도 들으시고 앉아서도 들으시면서는 그들에게 펼쳐주실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하신다. 자나깨나 인민을 생각하시며 꿈결에서조차 인민의 마음을 의식하시는분, 이런 다심하고도 위대한분의 구상이기에 그것은 그대로 인민의 꿈과 잇닿아있고 어김없이 현실로 펼쳐지는것이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사랑의 그 모든 설계도를 자신의 땀젖은 발자욱으로, 자신의 온넋으로 그리시였다.

이 나라 하늘길과 령길, 바다길에 물어보자. km로만 잴수 없는 그이의 온넋이고 심장의 불덩이인 그 한치한치에 어린 헌신과 로고는 그 얼마더냐.

그이께서 27hp의 목선으로 헤쳐가신 서해의 풍랑길과 더불어 천도개벽의 새 아침이 밝아왔고 땅우에서의 강행군을 구름우에로 이어가신 그 자욱자욱과 더불어 인민의 웃음이 하늘에도 꽃펴났다. 수수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상처입은 북방의 인민을 찾아 넘고넘으신 그 길과 더불어 선경마을의 새 전설이 태여났다.

그렇게 인민을 위한 웃음꽃,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이 땅이 비좁도록 가득 채워주시였건만 그이께서는 정녕 단 한순간도 만족을 모르신다.

인민이여, 들으시는가.

대동강에 또 하나의 행복의 새 배를 띄워주시고도 우리 원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속에 끓어번지는 소원의 불덩이를 터치시듯 뜨겁게 하신 말씀을.

《무지개》호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모래알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합니다.

모래알!

인민을 위한 그 업적 쌓으면 벌써 하늘에 닿으련만, 반만년의 숙망을 꽃피워준 그 은혜에 인민은 감사의 정을 누를길 없건만 자신의 그 모든 헌신과 로고를 그리도 작은 모래알에 비기시니 정녕 경애하는 그이의 리상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허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행복의 씨앗들을 황금의 열매로 주렁지우실 사색과 로고를 끝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께서는 바로 이런 불타는 일념을 안으시고 인민행렬차를 최대급행으로 몰아가신다. 자신의 강행군길에 《한시바삐》의 구령을 내리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짐을 싣고 달리신다.

그 렬차는 비탄 땅우의 길로만 달리지 않는다.

우리 이 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강도 강행군혁명시간의 한토막을 담는다.

22시 30분!

지난 11월 19일, 어둠이 깃든 수도의 거리를 지나 우리 원수님 지하평양의 개선역에 나오신줄은 누구도 몰랐다.

어제는 하늘길에서 우리의 경비행기를 타시고 시험비행을 하시더니 오늘은 깊은 땅속길을 왕복 누비시며 인민이 타고 달릴 우리의 미남자지하전동차의 첫 손님이 되시여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낮에는 낮대로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들을 찾아 초강도강행군을 하시고 밤에는 밤대로 첨단문명의 지름길을 앞장에서 열어가시며 심야강행군을 하시는분, 인민을 위한 헌신의 전장을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넓혀가시며 땅우로, 바다로, 하늘로, 땅속으로 종횡무진하시는 그 로고는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수 없다.

인민을 위한 만짐에 최대급행!

아직은 이 세상 그 어느 이름난 문사도 이런 불굴의 인간의 초상을 작품에 담아 형상하지 못하였다.

얼마나 힘드시랴. 그이도 인간이신데야!

우리는 다 모르고 산다.

험한 건설장의 층층계단을 오르시던 그 걸음이 또 어느 령길, 어느 바다가의 굽이굽이로 이어지고있는지,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위해 그이께서 사색을 이어가신 113건의 형성안이 오늘은 또 몇백몇천건의 설계도로 이어지고있는지.

집무실책상우에 높이 쌓였다가는 낮아지고, 낮아졌다가는 또 높아지는 문건들, 그런 무수한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이 합쳐져 우리 생활의 행복한 시공간을 이루거늘 인민이여, 그대들이 기쁨에 잠겨있을 때 그 웃음 지켜 잠 못 드시는 위대한 어버이가 계심을 잊지 마시라. 그이께는 인민의 그 웃음이 몇백밤의 피로도 순간에 사라져버리게 하는 남다른 보람이고 헌신의 열정에 또다시 힘을 더해주는 더없는 락이다.

최상의 문명!

이는 우리 원수님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자존심과 백과전서적인 실력의 총체이기 전에 인민위해 바치시는 천만고생의 고귀한 결정체, 인민사랑의 최고정화이다.

생활속에서 검증된 진리만큼 위력한것은 없다.

우리 인민은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그이의 리상이자 곧 우리의 행복이고 승리이다. 인류는 머지않아 첨단문명의 열매들을 모두 따안고 행복의 금방석에 앉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 *

세계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비약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목표가 있고 정신이 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

이는 조선로동당이 높이 추켜든 진군의 목표인 동시에 우리 시대 인간들모두의 창조의 구호이다.

천만군민이여!

승리의 신심안고 광활한 창조의 대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우리 시대의 자력갱생투쟁본때도, 멸사복무의 헌신적복무자세도 이것으로 증명된다.

피땀을 바친 사람만이 최상의 문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

솟구치는 격정이나 감사의 노래만으로는 문명국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없다. 최상의 문명창조를 위한 결사전에 뛰여들어야 한다. 보통의 걸음과 보통의 각오를 가지고서는 남들의 열걸음, 백걸음을 한걸음에 따라앞설수 없다.

세상사람들이 경탄하는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을 보라.

이들에게서 기적의 비결을 따로 물을 필요가 없다. 결사관철, 그들은 이 정신으로 우리 나라 건축공법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시공의 높은 목표를 돌파하였다. 무연한 밀림처럼 빼곡이 들어찬 건설장의 발대숲을 타고앉아 공중결사전을 벌리던 인민군용사들의 피어린 그 낮과 밤을 잊을수 없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한몸을 깡그리 바쳐 받들려는 불굴의 육탄정신, 결사의 돌격정신을 지닌다면 그 어떤 높은 고지도 단숨에 점령할수 있다.

과학의 설계도면에 우리의 앞날이 그려진다.

과학기술전선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총공격전의 전초선이다.

우리 원수님 대단하오, 대단해라고 거듭거듭 만족해하시며 시대의 자랑으로 내세워주신 지하전동차개발자들의 성과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충격은 참으로 크다. 만사람을 울린 뜻깊은 시운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으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할수 있다.

현대화이자 국산화라는 우리 당정책도 과학기술로 꽃피고 세계의 모든 문명을 앞질러가는 지름길도 과학기술로 열린다.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고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달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왜 가시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보급실들을 꼭꼭 돌아보시는지, 천만금을 들여 전민이 첨단의 요새를 점령해갈 과학기술전당을 세워주셨는지 그 깊은 심중의 뜻을 새겨안아야 한다.

오늘날 돈이 없는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다.

자신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자료들을 본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독서기풍, 탐구기풍을 따라배워 전민이 학습하고 최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여 경직된 사고를 풀고 참신하게 모든 일을 벌려나가자.

최상의 문명은 일군들의 멸사복무로 가꾸어지는 열매이다.

일군들이여!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을 위해 한몸 깡그리 불태우는 멸사복무의 화신이 되라.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맡은 단위도 우리 당이 그리는 문명의 새 지도에 당당히 자리잡을수 있는가.

일군이라면 도시에 있건, 심산벽촌에 있건 누구나 이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도록 세계를 굽어보는 높은 리상의 체현자, 뼈를 깎고 살을 저며서라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야마는 생눈길의 척후병, 모든 일을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줄 아는 드세찬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보다 큰 행복의 설계도를 펼쳐가고계신다.

누구도 상상할수 없고 넘볼수 없는 그 위대한 꿈의 빛발안고 우리 인민은 또다시 세계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닮아 포부도 배짱도 담대해진 이 위대한 인민의 진군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노도쳐 내달리자, 인민이여!

최상의 문명을 향하여 앞으로!

박 옥 경, 한 충 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와가두구

부르끼나 파쏘 대통령당선자

로크 마크 크리스띠안 까보레각하

나는 당신이 부르끼나 파쏘 대통령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2월 3일 평 양

방코크

타이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페하

나는 페하의 생일인 타이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따뜻한 인사를 보내면서 외교관계설정 40돐이 되는 올해에 두 나라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친선적인 귀국 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2월 5일 평 양

—평양산원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뜻을 높이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리자

5대교양의 실효를 높여준 참신한 방법론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사상공세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5대교양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실효를 거두고있는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이 주목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5대교양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구역당위원회가 잘한 점은 사상공세작전안부터 면밀하게 세운것이다.

구역당위원회 비서 백경철동무는 정초에 5대교양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선전선동부일군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진지한 토의끝에 교양, 강연, 선동을 비롯한 선전선동사업의 전반을 5대교양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문제, 모든 공정과 계기를 리용하여 5대교양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문제 등을 단계별로 반영한 부서작전계획이 세워지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5대교양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작전안을 세우는데서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도 중시하였다.

한것은 구역안에 근로단체동맹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조건과 관련된다. 하여 구역청년동맹, 직맹, 녀맹위원회들에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작전안들이 세워지고 조직별로 세분화된 목표들이 작성되였다.

이처럼 과학성과 현실성이 안받침된 5대교양작전안은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을 사상공세의 출발진지에 세워주었다.

5대교양의 실효를 높이자면 해당한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는것이 중요하다.

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장 리양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5대교양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구역당학교와 구역도서관, 구역출판물보급소…

신발이 닳도록 다닌 곳은 그 얼마이며 지새운 밤은 얼마인지 모른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완성한 5대교양자료집과 중앙예술선동사를 오가며 품들여 완성한 5대교양주제의 예술공연대본은 구역안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릴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런 면밀한 준비밑에 구역당위원회는 구역안의 당일군들과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5대교양과 관련한 강습을 조직하였다. 특히 5대교양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군들과 인민반장들의 강습을 의의있게 조직한것은 온 구역에 5대교양열풍을 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또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5대교양의 실효성을 높여나갔다.

평양신발공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간 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5대교양직관판과 5대교양자료집을 만드는 사업과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새로 보충하며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었다.

이런 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전형단위가 되였다.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데서 창조된 당조직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특색있게 하였다.

구역적인 5대교양자료전시회를 큰 규모에서 의의있게 진행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전시회를 통하여 5대교양과 관련한 수많은 교양자료들이 갖추어지고 당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묘술과 방법론을 배우게 되니 좋은 반영들이 제기되였다.

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는 5대교양을 모든 공정과 계기를 리용하여 진행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부서의 모든 사업계획을 5대교양으로 일관시키고 그 집행을 혁신적으로 하였다.

실례로 월교양사업방향을 세우는 사업도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온 교양사업방향을 놓고 부서에서 계획하고있는 5대교양내용을 보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 집행도 참신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연구발표모임,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에 대한 해설모임, 리인모동지의 투쟁실화를 통한 교양, 반제계급교양주제의 그림전시회, 도덕교양직관판을 통한 교양…

구역당위원회는 5대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해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재정비하고 보다 잘 갖추기 위한 사업도 잘하였다.

우선 공장, 기업소기동예술선동대, 동녀맹기동예술선동대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구역적인 선동원출동모임, 공장기동예술선동대와 동녀맹기동예술선동대 공연경연을 조직하여 이 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관심을 높여주고 단위들 호상간의 경쟁심을 북돋아주었다.

지난 3월 구역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당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5대교양에 총동원하기 위한 출동모임은 실효가 대단했다.

구역당위원회의 이런 사업들은 온 구역을 5대교양열풍으로 끓게 하였다.

그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면모가 새로와지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이 창조되는 등 구역의 전반사업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지난 4월 원산시에서는 5대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창조된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전당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있었다.

이렇듯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을 방법론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5대교양사업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화선식이 제일

사리원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리원시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방도로 제기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11월 12일, 시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진행할 방대한 목표를 당결정으로 채택하였으며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방향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일군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여야 합니다.》

화선식!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이것을 사상공세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였다.

부서에서는 먼저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이후 담당지도원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인것을 놓고보자. 비서 최경일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그들이 담당단위들에 나가기 전에 화선식선전선동방법을 더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학습담화와 문답식학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의 심오한 사상과 내용을 뼈와 살에 쪼아박도록 하였다.

전투의 정황과 조건에 따르는 해설담화자료 등을 준비시켜 출연도 시키고 합평도 진행하면서 실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부서성원전원이 경제선동활동을 벌리면서 시안의 전투장들을 들썩하게 하던 전통을 살려 부서에 새로 들어온 동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모니카, 피리, 북 등 대중악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그 무엇에도 막힘이 없는 팔방미인으로 준비하도록 하는데도 품을 넣었다.

부서일군들의 실력은 곧 선전선동사업의 실효로 나타났다.

대성협동농장을 맡은 김정혁동무는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풀어주면서 그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는 정치사업을 능란하게 벌려 영농사업에서 전례없는 실적이 나게 하였다. 윤하지구를 맡은 오철희동무를 비롯한 담당지도원들도 당정책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설하면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부서에서는 좋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화선식선전선동방법이 모두의 몸에 푹 배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켰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을 비롯하여 혁명사적교양실이 새로 꾸려지는 단위들에서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으로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면서 헌신의 낮과 밤을 수놓아갔다.

부장 한경수, 부부장 김영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도육아원건설장에서 건설자들과 구슬땀도 함께 흘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는데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일군들은 시안의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얼마전에도 직외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무어 농촌에 대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 강연은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높여주었다. 이렇듯 최근 시에서 이룩되는 자랑찬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드세차게 벌려온 이곳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노력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으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승리의 진격로를 활짝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리정수

전투장마다, 기대마다 진격의 나팔수가 있다

순천구두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순천구두공장이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치며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단 몇달동안에 구내의 야산을 깎아내고 3층으로 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본래 있던 정양소자리에 3층짜리 현대적인 정양소를 지어놓고 지금 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공장의 모든 건물들의 개건보수가 동시에 벌어지고있다.

날로 변모되는 공장의 모습은 주인들인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믿기 어려워한다.

단 몇달사이에 산을 떠옮기고 빈터우에 훌륭한 건물도 일떠세운 이런 기적은 바로 그들의 정신력이 안아온것이며 그 정신력은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정치사업이 불러일으킨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정치사업이라고 하면 당, 근로단체일군들이나 초급선전일군들의 몫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 지도사업을 나온 도당일군들, 초급일군들, 당원들까지 모두가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였다.

초급당위원회가 이 문제를 중시하게 된 계기가 있다.

지난 3월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킬 방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순간에 전투장들이 많아졌다.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았다.

생산과 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로력과 자재, 설비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초급당비서 신정숙동무를 비롯한 당일군들은 그 해결방도를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갔다.

그들은 우선 공장의 정치사업력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시기처럼 몇몇 일군들만 정치사업을 진행할것이 아니라 공장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과 초급일군들, 당원들까지 다 정치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그것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공장의 직장들과 작업반들, 건설전투장들과 지어 기대들까지 다 정치사업의 활무대로 전환되여 온 공장에 사상전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던것이다.

초급당위원회가 다음으로 잘한것은 정치사업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인것이다.

지난 시기처럼 회의실에 종업원들을 모여놓고 호소나 하고 강조나 하는 식의 정치사업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이 전투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야전식으로 화선식정치사업을 실효성있게 진행하게 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일군들은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이 나날 초급당비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선동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재인수원도 되였으며 후방사업으로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군수관도 되였다.

녀성들이 많은 공장의 조건에서 미장공로력이 걸렸을 때에도, 세멘트와 모래를 비롯한 자재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해결함으로써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도당일군들이며 어느 한 건물의 층막공사를 진행하던중 뜻밖의 일로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 공사가 중단없이 진척되도록 한 공장초급당일군을 비롯하여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에 대한 사실들은 끝이 없다.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 이신작칙에 고무된 공장의 종업원들은 분발하였다. 그들은 하루일을 끝마치면 저마다 건설현장으로 달려나와 진정을 바치고 땀을 바쳤다.

결국 지난 시기같으면 몇년이 걸려도 할수 없었던 일을 단 몇달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그렇다. 전투장마다, 기대마다 진격의 나팔수가 있다.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빛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이런 진격의 나팔수들이 많기에 순천구두공장의 오늘의 성과도 좋지만 래일의 성과는 더욱더 눈부실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평양기료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현지보도‖

공사장의 비상한 숨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산소직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여기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현대화공사장이다.

심장의 피를 펄펄 끓게 하는 박력있는 글발들이 새겨진 커다란 직관판들이 쭉 늘어서있는 공사장에서는 지금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이 한창이다.

마이크앞에 나선 녀성기동예술선동대원의 목소리가 쩡쩡 울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산소분리기현대화공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강철전사들과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환영곡이 공사장을 들었다놓는다.

합창 《천리마대진군의 노래》와 녀성4중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비롯한 전투적인 노래들이 울려퍼져 공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노래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일손을 다그치는 전투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전세대들이 창조한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본받아 오늘의 총진군에서 강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줄 의지가 력력히 비껴흐른다.

날씨는 차서 선뜩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웃도리를 벗어제끼고 걸싸게 혼합물을 이기는 로동자들과 맞들이를 들고 승벽내기로 달리는 남녀돌격대원들, 다짐봉을 힘차게 내려조기는 청년들의 입에서는 더운 입김이 연기처럼 피여오른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이 무대에 나선다. 이 공사를 기한전에 무조건 끝내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하자는 그의 불같은 호소에 전투원들 모두가 강철같이 단단한 팔을 추켜올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화답해나선다.

높아가는 경제선동의 북소리와 함께 전투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된다.

혼합물이 남아돌아갈 사이가 없다. 번개같은 삽질 몇번이면 어느새 맞들이에 혼합물이 수북이 담겨져 다짐공들이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운반된다.

공사장 여기저기서 《물!》, 《세멘트!》, 《혼합물!》하는 소리가 연방 터져오른다. 불과 세시간 남짓한 사이에 바닥이 콩크리트로 포장되여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경제선동무대에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이 마이크를 잡고 저력있는 목소리로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부르고있다. 온 공사장이 그의 노래를 따라 합창한다.

전투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충천하다.

선동원이 련이어 계시하는 이동속보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오늘계획량의 70% 계선 돌파!》

껑충껑충 뛰여오르는 전투실적이지만 누구의 얼굴에서나 만족한 기색이란 찾아볼수 없다.

김혁청년돌격대 대장 고병일동무의 말이 일군들이 경제선동무대에 나서 정치사업도 하고 돌격대원들과 일도 함께 하니 날마다 새 기록이 창조된다고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매우 인상깊다.

《우리도 돌격대원이고 기동예술선동대원입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에 드릴 전례없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듯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는 당위원회일군들이 전투장한복판에 서있기에 완공의 날을 앞당길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전투장을 떠났다.

허일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흥남비료련합기업소현지지도 70돐과 련합기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70돐과 련합기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6일에 진행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일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파괴된 경제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추켜세우는데서 흥남비료공장(당시)복구를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주체34(1945)년 12월 공장에 찾아오시여 복구와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전기와 설비, 기술자문제, 로동자들의 후방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헤아려주시며 은정깊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말하였다.

흥남의 로동계급이 창조적로동으로 부강조국건설의 억센 첫걸음을 내디딜수 있게 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첫 현지지도는 나라의 화학공업발전과 기업소발전력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져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손길아래 창립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온 기업소의 70년력사는 오직 인민을 제일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이며 그 길에서 주체적화학공업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은 모두다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년대들마다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선진적이며 영웅적인 로동계급으로 자랑떨치며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부문 호상간, 공정간 련계를 강화하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 등 맡겨진 화학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기업소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추동한 중요한 계기

전국과수부문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에 참가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것입니다.》

얼마전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전국과수부문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가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과일생산에서 제기되는 실천적경험들을 더 폭넓고 깊이 배워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쥘데 대한 당의 뜻을 하루빨리 꽃피워갈 불타는 일념이 비껴있었다.

농업성 관리국장 김철호동무는 올해 전국의 과수부문에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전례없는 과일대풍을 안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8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수농장들에서 정보당 50t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내걸고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는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배우 큰 관심사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일군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였다.

최근년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청춘과원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이 널리 재배되고있다. 해당 단위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특성이 서로 다른것만큼 과일나무의 품종배치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정확히 하고 시기별, 공정별에 따르는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과수업을 과학화하는것도 우리앞에 나서는 필수적요구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농업성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하여 과수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을 과일증산의 중요한 방도로 보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번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에는 13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제출되였으며 그중에서 근 30건이 발표되였다.

발표회는 출연자들이 콤퓨터편집물을 리용하여 자기 단위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경험들을 해설한 후 참가자들속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답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는데 그에 대한 반영이 좋았다.

이 과정에 참가자들은 최근에 도입된 우량품종들의 생물학적특성과 중간대를 리용한 키낮은복숭아나무모생산방법 등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과일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나무모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이룩된 경험들을 배울수 있었다.

그리고 람조류생물활성되비를 리용하면 지력을 높여 과일나무들의 영양관리를 개선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특히 땅을 기름지게 걸구는것과 함께 결가지수를 늘이고 헛가지자라기를 극력 억제할수 있게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정보당 50t의 수확고를 낸 덕성사과농장의 사과생산경험이 참가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일전시회도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천과수농장과 송한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을 비롯한 각지 농장들에서 출품한 여러가지 과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고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순결한 마음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면 당이 제시한 과일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수 있다, 이것이 이번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하기에 올해의 전국과수부문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라의 과수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과 경험들이 널리 보급된것으로 하여 과일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글 및 사진 박영진

수산업의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더욱 빛내이자

과학적인 어로전에 성과의 비결이 있다

련진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련진수산사업소가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년간 해마다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이 단위에서는 열흘 남짓한 기간에 겨울철물고기잡이계획을 130%이상 수행하였다. 이 성과는 생산능력대 어획고, 연유소비 대 어획고에서 주목할만 한것이다.

성과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한 보장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다. 어장도 다른 단위들과 엇비슷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고기배와 연유, 이것은 수산부문 일군들이 자주 화제에 올리는 말이다.

하지만 이곳 지배인 현천호동무의 견해는 달랐다.

앞선 어로방법을 받아들이면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이 단위의 생산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단위가 생산활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 비결은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린데 있었다.

지배인은 고기배와 어구 등 현존생산수단들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해 선진어로방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강하게 들어쥐고 내밀고있다.

수산사업소에는 수십hp정도의 고기배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기배들은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사계절 어로전을 들이댈수 있게 만능화되였다. 어기와 어종별에 따라 자망, 조리개, 덤장작업을 제한없이 진행할수 있다.

사업소에서는 여러가지 앞선 어로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있는 고기배들을 가지고 보다 높은 어획고를 기록하고있다.

이번 집중적인 도루메기잡이 전투과정을 놓고보자.

10월 하순 도루메기떼가 나타나자 사업소에서는 들어오는 물고기들을 마중나가 잡기 위한 첫 단계작전을 펼치였다. 이때에는 소형건착어로방법이 기본이였다.

그물을 실은 60hp고기배가 동력화된 전마선을 2척씩 달고 어장으로 나간다. 그중의 한 배에는 불빛을 잘 따르는 도루메기의 습성을 리용할수 있게 전광장치가 갖추어졌다.

고기배들은 어장에 도착하면 대낮처럼 밝히는 고기배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주위를 그물로 둘러쌌다. 다음 배호상간 협동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포획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안으로 떼지어 들어오는 도루메기는 불빛을 좋아하므로 그물에 많이 들게 된다. 이곳 어로공들의 말에 의하면 한기망에 10t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때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잡은 물고기는 동력화된 전마선에 2t정도씩 싣고 포구로 연방 운반하였다. 그 시간에 전광장치가 갖추어진 고기배는 다른 어장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물고기떼를 유인하여 모아놓았다. 이런 어로작업이 반복되여 진행되였다.

다음은 도루메기떼가 연안에 접근하였을 경우이다. 이때에는 작은 고기배들까지 총동원하여 비교적 먼바다에서는 소형건착어업을, 가까운 수역에서는 덤장과 자망어업을 하였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막고 한곳에 몰아넣어 잡는 이 어로방법의 적극적인 활용 또한 중요하였다. 일단 설치만 해놓으면 그물을 추는데 시간과 품이 적게 들어 이중삼중의 물고기잡이를 조직하기에 유리하였다.

여기서 지배인이 늘 관심하는 문제가 있다. 기술자들을 인입하여 도루메기의 알성숙정도, 기망당 암컷과 수컷의 비례 등에 대한 생태분석을 하는것이다.

실례로 알이 점차 굳어지면 연안으로 바싹 접근하는 도루메기떼로, 수컷이 많으면 나아가는 물고기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기동적으로 어로전투를 지휘한다.

이렇게 과학적인 어황예측과 여러가지 앞선 어로방법을 배합하니 나가는 도루메기떼까지 놓치지 않고 더 많이 잡을수 있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

연유 1t으로 10t의 물고기를 잡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다.

앞선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니 적은 연유와 생산수단, 로력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연유소비를 측정해본데 의하면 10t의 물고기를 잡는데 100kg미만이 소비되였다고 한다.

과학적인 어로전은 원가를 저하시켜 기업관리측면에서도 좋았다.

지배인 현천호동무는 과학적인 어로전으로 얻은 실리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기업소의 생산토대를 다져나가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결과 바다가양식장과 동식물배양장의 능력을 크게 확장하고 사업소안팎을 새롭게 일신시켜나갈수 있었다.

성과의 비결을 놓고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과학적인 어로전에 증산의 예비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밤을 밝혀 새로운 어로방법을 탐구하는 실천가형의 일군이 되여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겠습니다.》

단위책임일군이 과학적인 어로전을 이끌어나갈 실력이 부족하면 일군의 자격이 없다는것이 현천호동무의 견해이다.

그는 한개 단위의 생산을 책임졌다는 자각밑에 앞선 어로방법을 탐구하고 수산업의 과학화와 관련한 선진기술을 더 많이 습득하기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다.

도와 중앙으로 오가는 출장길에서 그의 관심사로 되는것은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배워오는것이며 수산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새로운 어로방법들과 양식, 양어기술을 받아들이고있는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이렇듯 수산업의 과학화를 당의 정책으로, 사상적문제로 접수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단위책임일군이 있는 곳에서는 높은 어획고가 기록되기마련인것이다.

련진수산사업소 지배인 현천호동무의 사업경험은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수산업의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이 황금해의 새 력사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두뇌전, 기술전과 만선기

◇ 《이채어경》!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포구마다에 물고기폭포, 물고기산이 펼쳐져 황금해력사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새로운 한페지가 빛나게 장식되고있다.

짧은 기간에 수천t의 물고기를 잡은 수산기지들이 있으며 하루동안에 지난 시기 한해생산량과 맞먹는 어획고를 기록한 단위들도 적지 않다. 비결은 어장탐색과 해상지휘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있다.

지금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황탐색과 어황예측에 기초하여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어획고를 부쩍 높이고있다. 인민군대지휘관들은 포구와 해상에서 과학적인 어로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당이 바라는 수준에서 항차당, 기망당 어획고를 보장하여 황금해의 새 력사를 빛내이자면 과학기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은 물고기잡이가 벌어지는 조국의 바다를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

◇ 수산업의 과학화는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은 사회의 수산부문에서 비약적인 물고기잡이실적을 거둘것을 바라고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는 원동력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함께 과학적인 어로전에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업을 과학화하는것은 당의 정책이며 사상적문제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은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더해주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보았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성과가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처럼 과학기술을 중시하면 불리한 어황속에서도 만선기를 휘날릴수 있다.

◇ 과학기술로 포구마다에 만선기를 휘날리자.

각지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항차당, 기망당 어획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앉아 우는소리를 하기 전에 과학적인 어장탐색과 어황예보를 위해 지휘선을 타고 날바다를 종횡무진하는 일군, 새로운 어장예측을 위해 밤을 밝히며 어장을 탐색하는 바다의 척후병이 되여야 한다.

수산부문에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처럼 과학적인 어장탐색, 해상지휘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현대적인 어구와 앞선 어로방법들을 받아들이며 고기배와 물고기가공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수산부문 과학연구기관들과 탐색선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이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황금해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어로공들이여,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처럼 과학적인 어로전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

불가능을 모르는 자력갱생의 강자로

통천수산사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

통천수산사업소에 가면 두뇌전, 기술전의 명수들로 불리우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있다. 그들의 투쟁은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최첨단을 돌파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인공지구위성 제작자, 발사자들처럼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창조기풍으로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해나가는 완강한 실천가,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통천수산사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수산업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모두가 끝끝한 제대군인들이며 원산수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3대혁명소조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닐 때 가슴속에 강렬하게 불타오른 지향은 오직 하나, 보답이였다.

하지만 결코 쉽게는 걸을수 없는 길이였다.

아직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이들이 이악하고 완강한 노력으로 마련해놓은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결정체이기 전에 애국충정의 넋이고 헌신의 피땀이였다.

정연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소조원들이 새로운 배무이와 어군탐색 및 고기잡이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 장치개발에 떨쳐나섰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이 자체의 힘으로 그 숱한 자재들을 어떻게 마련하며 이름있는 과학연구기지나 큰 공장에 가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남만 믿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해낼수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해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굳은 결의밑에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정연호, 리찬영동무들은 새로운 배무이설계와 제작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한명해동무는 하륙설비에 필요한 진공뽐프설치와 관늘이기작업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김윤철동무는 현대적인 수자식바다물온도측정장치를 새로 창안제작하여 바다가양식과 어군탐색을 보다 과학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어로작업의 특성에 맞게 동기발전기에서 절연의 믿음성을 더욱 높이고 종전보다 가동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널리 받아들이는데 한몫 단단히 한 리광호동무, 대용자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바다가양식과 배들에서 물고기의 랭동보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한 김태철, 방일철, 백학철, 김연철동무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업소어로공들과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어군탐색 및 고기잡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 장치들을 창안제작하고 자체로 새 고기배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보람찬 창조의 나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된 통천수산사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오늘도 자력갱생의 불길높이 수산업의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탐구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혁신의 불길은 어떻게 타올랐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업의 과학화사업을 적극 다그치는것은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울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지금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적인 기상예보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기가공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과학적인 어군탐색방법을 적극 받아들인다. —수산성 동해어로탐색대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어장의 정찰병들

지난 11월 중순 대장 김철일, 연구사들인 조철룡, 전홍련동무들을 비롯한 수산성 동해어로탐색대 성원들은 새로운 어장을 찾아 고성앞바다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온도분포에 따르는 물고기떼의 움직임을 탐색해나갔다.

긴장하게 어군탐지기를 살피던 김철일동무의 힘찬 구령소리가 울리였다.

《물고기떼 발견! 예망준비!》

구령소리가 끝나기 바쁘게 투망작업이 시작되였다.

결과는 대단히 좋았다. 기망당 잡힌 물고기량은 여러t 잘되였다.

물고기생태조사를 깐깐히 해나가던 연구사들은 알쓸이를 다한 도루메기가 95%이상이라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물고기떼가 어장에 머물러있을 기일은 불과 10여일안팎이라는것을 판정해냈다.

판정결과는 즉시 수산성 현장지휘부에 보고되고 모든 고기배들에 전달되였다.

결과 수많은 고기배들이 제때에 어장에 진출하여 물고기생산량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수산성 동해어로탐색대 성원들은 오늘도 어장의 정찰병이라는 남다른 긍지감을 안고 새 어장을 찾아 항로를 헤가르고있다.

하륙시간을 단축하여

원산수산사업소에서는 올해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취재과정에 고기배들의 하륙시간을 단축한 결과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지난 시기 물고기잡이성과여부는 과학화사업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온 기업소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하륙장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많은 배들이 만선하고 돌아왔어도 생산물을 제때에 하륙하지 못하면 그만큼 어장진출이 늦어지게 된다. 이것은 그저 스쳐보낼 일이 아니였다. 집중어로전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한시간 한시간이 참으로 귀중한것이였다.

기업소에서는 해결방도를 하륙장에 진공뽐프를 설치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진공랑크제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나하나 완벽하게 풀어나가면서 하륙장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하륙장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려놓으니 지난 시기 하륙시간이 한척당 평균 몇시간씩 걸리던것이 1시간안팎으로 훨씬 줄어들었다.

하륙시간이 짧아지니 고기배들의 포구에서의 머무름시간은 줄어들었고 대신 고기잡이시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여 생산실적은 부쩍부쩍 오를수 있었다.

본사기자 주령봉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

각지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이 땅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열어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의 하나인 중앙동물원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성심성의로 적극 지원하였다.

금강지도국 일군들은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공사에 동원된 시공단위들에 많은 건설기자재들을 보내주어 공사가 높은 질적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은하지도국의 일군들은 맡은 대상건설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을뿐만아니라 공사에 동원된 건설자들에게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그들이 더욱 앙양된 기세로 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해주었다.

대외건설지도국 부원 강성계, 박윤식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시려 조국땅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간절한 마음을 안고 중앙동물원개건공사에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을 다 바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문명의 향유자가 되기 전에 창조자가 되려는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건설장에 달려나가 공사의 질과 속도를 최대로 높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중앙동물원 안내봉사작업반 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 보람찬 전투에 위훈의 자욱을 새길 애국충정의 한마음으로 개건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앞장에서 힘있게 달려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담배련합기업소 책임부원 박영심동무는 지난 8월 어느 일요일에 두 아들과 함께 중앙동물원을 찾아갔다가 개건공사가 진행되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는 자식들과 늘 동물원을 즐겨 찾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기 위해 백열전을 벌리는 건설자들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다는 자책에 휩싸였다. 하여 그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식들의 밝은 앞날과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자각을 안고 중앙동물원개건공사에 아낌없는 지성을 다 바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우리의 미더운 청소년학생들도 한몫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제1의학부 학생 허진주동무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쳐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소중한 포부를 간직하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 야간지원청년돌격대에 망라되여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껏 지원하면서 중앙동물원개건공사장에 지성어린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학생 김명호, 평북종합대학 기계공학부 학생 곽금수동무들도 애국의 한마음안고 개건공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모란봉구역 개선고급중학교 박건일, 보통강구역 봉화초급중학교 백세복, 회창군 회창소학교 김강성, 김은성을 비롯한 학생소년들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중앙동물원을 더 훌륭히 개건하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하려는 기특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건설현장에 지원하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중앙동물원에서는 2단계개건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자연박물관과 조류관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이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온 나라의 크나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속에 공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과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더욱더 기세충천하여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앞당겨 완성할 결의에 넘쳐있다.

리신향

유훈관철투쟁에서 중시한 두가지 문제

‖ 강계고려약가공공장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지지도단위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신 현지교시를 관철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수놓아져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주체95(2006)년 2월과 주체99(2010)년 7월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약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약품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방법론있게 전개하였다.

유훈관철투쟁에서 부문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는 우선 종업원들이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것이다.

공장에 고려약연구소를 건설하던 때였다. 연구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일떠서는 창조물이였다.

대소한계절에 착공의 첫 삽을 박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연구소를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높은 목표를 내세운 부문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예술소품공연을 통한 사상사업이 실효가 컸다.

어버이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사연을 엮은 대화시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예술소품을 품을 들여 준비한 부문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앞에서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공장인데 가보자고 하시면서 비내리는 궂은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해놓은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오늘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종업원들은 격정속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앉지 말고 일을 잘하라고, 다음번에 자강도에 오면 꼭 다시 공장에 오겠다고 하신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종업원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으로 연구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자.

이런 숭결한 마음을 안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불과 몇달사이에 3층으로 된 건물을 일떠세운 그들은 현대적인 분석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벌렸다.

훌륭하게 꾸려진 연구소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충정을 다해온 종업원들의 순결한 마음과 불같은 열정의 첫걸음마를 뗀 공장, 너무도 작고 수수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조차 없던 공장이 온 나라가 다 아는 공장,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보배공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장에서 련속역류추출기제작전투가 벌어질 때였다. 이 설비의 제작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관건적인 문제였다. 이 설비가 있어야 고려약생산을 몇배로 끌어올릴수 있었던것이다.

련속역류추출기제작문제가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되였지만 공장에는 이 설비를 본 사람조차 없었다.

하지만 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그들은 기술자,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와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어느날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한 지배인 김명남동무는 공장에서 고려약액스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던 10여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려약액스생산의 공업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래전에 고려약생산부문에 주신 과업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무조건 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지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액스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약생산부문에서 진공농축법에 의한 액스생산을 공업화한것은 이 공장이 처음일것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액스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약품의 량이 늘어나고 질이 높아졌으며 위생성이 더욱 원만히 보장되게 되였다. 보관하기에도 편리하고 먹기에도 쉬운 액스화된 고려약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훨씬 높아졌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이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새긴 진리이다, 어떻게 하나 련속역류추출기를 만들어 고려약생산을 늘이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자고 호소하였다.

현택호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이악하게 노력하여 마침내 자체의 힘으로 련속역류추출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약생산을 몇배로 끌어올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큰길을 내짚게 되였다.

엑스생산공정의 콤퓨터조종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건조엑스생산토대를 그쯘히 닦아놓은것을 비롯하여 고려약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실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깊이 간직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충정의 열매이다.

부문당위원회가 종업원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과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짜고들어 진행한 결과 유훈관철투쟁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이 과정에 공장은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가는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

참된 복무자의 눈에는 늘 일감이 보인다

운산군의 일군들

내 조국땅 그 어디에나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새우고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미더운 일군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속에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우리》라고 불리우고있는 운산군의 일군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어느날 운산소학교에서는 군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에 앞서 일군들이 학교를 돌아보게 하고난 군당책임일군은 말하였다.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라는것은 우리 수령님들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학생들이 여러가지 과외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여있지 못하다. 이 문제를 풀자면 결정적으로 교사를 더 건설해야 한다. 여기 모인 일군들이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노력하면 교사를 하나 지어주지 못하겠는가.

책임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은 자신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러느라니 학교일에 자기 일처럼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들이 뉘우쳐졌다.

새 교사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였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일군들, 군량정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건설장으로 달려왔다.

자재보장사업이 앞세워지고 공사가 일정대로 힘있게 추진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교실의 책상과 걸상, 출입문 하나하나에도, 계단의 란간과 복도의 직판물에도 마음을 쓰며 자식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쏟아부었다.

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던 어느날 교사건설장에 들린 책임일군은 학생들이 리용하게 될 옷걸이를 손질하던 건설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였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말하던데 우리 군에 있는 온탕이 그렇게 치료효과가 좋다누만.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녀성들이 찾아온다는거요.》

책임일군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있었다.

사실 군에서는 이미 료양소개건전투를 진행하고있었다.

하지만 인민들이 기대하는것만큼 관심을 돌리지는 못하였다. 책임일군은 자책되는바가 컸다.

그길로 료양소를 찾은 책임일군은 료양소개건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일정계획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나서 건설현장을 돌아보았다.

그날 식당에 들려서는 주방을 더 환하게 꾸릴 방도를 내놓고 치료실에 들어가서는 료양치료에 필요한 설비들을 손을 꼽아가며 들어가는 책임일군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참된 복무자의 눈에는 늘 일감이 보이는 법이라고.

얼마후 3층으로 된 료양소건물이 훌륭히 완공되였다.

지난여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군의 도로관리상태를 료해하느라 쉴새없이 걷던 책임일군의 눈길이 풍양협동농장 제3작업반마을로 미치였다.

몇해전에 군에서 달라붙어 품을 들여 일떠세운 마을이여서 농장일군들이 보기에도 흠잡을데가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작업반마을로 군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들어섰다. 영문을 몰라하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책임일군은 말하였다.

《동무들의 살림집을 손색없이 보수해주자는겁니다. 그러니 다른 걱정말고 농사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농장원들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장원들이 근심걱정 없어야 일을 더 잘할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살림집보수에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였다.

그들은 살림집을 말끔히 보수해주는것과 함께 집집마다에 있는 메탄가스탕크도 말끔히 손질해주었다.

일을 짧은 기간에 끝낸 후에는 살림집보수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세세히 알아보고 가스가 제대로 나오는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서야 마을을 떠났다.

농장원들은 번듯하게 꾸려진 살림집을 돌아보며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을 후덥게 느끼였다.

이런 이야기는 군의 어디에가나 들을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직물공장과 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과 메기공장, 버섯공장, 남새온실들에도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마음안고 날과 달을 이어온 일군들의 헌신의 땀이 깃들어있다.

군의 면모는 또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는것인가.

도시경영사업소에 새로 꾸려진 외장재생산기지에서 나오는 질좋은 외장재로 거리와 마을이 아름답게 단장되고있다.

날마다, 달마다 새라새롭게 변모되는 군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일군들의 헌신의 모습을 뜨거운 마음으로 떠올리군 한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군의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드높이 오늘도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할 일념을 안고.

본사기자 현경철

충복의 제일무기—진심

평양전기기구공장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평양전기기구공장에서는 해마다 정전축전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다.

지난 시기 종업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새 제품개발을 다그쳐온 공장에서는 내의단추생산설비, 수지관성형기를 갖추어놓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또다시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쓰이는 쇠그물생산기지를 꾸릴 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처음 다루는 기계여서 제품생산이 시원치 못했다.

지배인은 대범하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는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라고 이르며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경험과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견습도 알심있게 조직했다.

《기본은 우리 기술자, 종업원들의 정신력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인의 생각을 적극 지지하면서 초급당일군은 강조했다.

《그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제일무기는 사랑과 정을 담아 그들에게 바치는 우리 일군들의 진심이라는것을 잊지 맙시다.》

초급당일군의 이 말은 지배인의 가슴을 울렸다. 종업원들과 일손을 같이할 때면 해놓은 일의 량을 따지기에 앞서 그들의 얼굴빛부터 눈여겨 살피고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며 사소한 피로움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을 쓰고 풀어주던 초급당일군, 더들을수록 어찌하여 초급당일군이 기술자, 기능공들을 위해 땔감을 마련해가지고온 지배인을 그처럼 기쁨과 격정속에 맞이했고 앓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바친 진정이 그처럼 뜨거웠는지 그리고 새 제품개발문제를 놓고 지배인과 마주앉을 때면 태도와 자세가 어찌하여 그리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였던지 그 밑바탕에 놓인 웅심깊고 열화같은 심정이 헤아려져 가슴이 후더워났다.

그 불같은 진심으로 초급당일군은 공장의 생산정상화와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위해 누가 알아주건말건 지혜와 열정을 묵묵히 바쳐오는 한 기술일군의 마음속고충을 깊이 헤아려보고 남모르는 길을 수없이 걷고걸으며 마침내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도록 하였다. 그의 불같은 진심은 새라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완강하게 돌진하는 지배인의 곁에 기술자, 기능공들을 믿음직하게 따라세우며 동무들의 기술기능이면 지배인동무에게 나래를 달아주는것과 같다고 곱씹던 사려깊은 목소리에서 감동깊이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쪼아박고 어머니심정으로 대중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공장일군들의 고상한 품성은 그대로 불씨가 되여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한껏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이악하게 노력하여 쇠그물뜨는기계운전을 시작한지 5개월만에 당초에 세운 목표의 2.5배가 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동시에 수동식기계 1대를 자동화하여 제품의 생산성과 질적지표를 개선하였다.

충복의 제일무기는 진심이다.

평양전기기구공장에서 전력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제품생산에서 거둔 성과는 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바치는 진심의 위력과 실효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치곤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강남군에 가면 이곳 주민들이 자랑하는 크지 않은 블로크생산기지가 있다. 여기에는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헌신하고있는 군검찰소일군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올해 1월초 어느날,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주민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읍거리를 지나던 검사 최명희동무는 길거리주변과 살림집울타리가까이에 무드기 쌓여있는 탄재무지를 보며 생각이 깊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저 탄재무지들을 말끔히 회수하여 읍거리도 환하게 하고 주민생활에도 효과적으로 리용할 방도는 없겠는가.)

그는 일군들이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되새길수록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닌 검찰일군으로서 자신이 응당 해야 할 일로 자각하게 되였다.

그길로 당조직을 찾아간 그는 쓸모없이 버리는 탄재로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블로크를 생산하는 건재기지를 일떠세울 결심을 터놓았다.

당세포비서인 김홍식동무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건재기지 건설을 우리가 맡아합시다.》

당세포비서가 힘주어 하는 말이였다. 그후 소장 리광호동무를 비롯한 검찰소일군들은 맡은 일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재기지꾸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은 군인민위원회와 협동하여 이미 있던 어느 한 건물을 개건보수하고 설비를 들여앉히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공사가 시작되여 어느 정도 진척되고있을 때 생산에서 기본설비인 구멍블로크성형기가 해결되지 않아 난관이 조성되였다.

며칠이 지나도 설비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괜히 고생을 사서 한다고, 이제라도 그만두는것이 낫지 않겠는가고 하는 목소리들이 올려나왔다.

설비해결을 위해 뛰여다니던 최명희동무는 손맥이 풀려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가 되새겨져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러던 어느날 최명희동무는 어느 한 구역에 사장되여있는 블로크성형기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달음으로 검찰소일군들은 그 설비를 가져다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되살려쓰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나날 이들이 바친 헌신의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지난 5월, 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건재기지에서 블로크생산이 시작되였다.

이곳 검찰소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건설된 건재기지의 덕을 읍지구를 비롯한 군인민들이 단단히 보고있다. 최근에 건설한 군산림경영소, 종어사업소, 온실, 버섯공장 등 군안의 크고작은 건물공사에서 여기서 생산한 블로크가 크게 은을 내였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을 위한 이들의 헌신은 영예군인들을 위하는 일에도 아름다운 자욱을 새기였다.

몇해전 2월초 어느날 저녁이였다. 최명희동무는 퇴근길에 읍지구에 오수봉특류영예군인이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조국을 위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영예군인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때로부터 그는 영예군인인 오수봉동무의 가정을 친혈육처럼 도와나섰다.

자주 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아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가를 알아보고 힘껏 도와주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명절이나 영예군인의 생일이면 성의껏 마련한 보약과 건강식품들을 가지고 딸들과 함께 오수봉동무의 집을 찾군 하였다.

특류영예군인의 집안팎을 깨끗이 손질해주는것은 물론이고 세바퀴차와 갖가지 내의류, 록화기도 사심없이 마련해준 최명희동무와 검찰소일군들이였다.

올해에만도 이곳 검찰소일군들은 버섯공장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조영훈

일군의 인정미와 혁신의 밑거름

라선건설사업소 지배인 최영보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대중을 열렬히 사랑하며 따뜻이 대해야 합니다.》

늘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함줄 아는 일군들은 례외없이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런 일군들속에 라선건설사업소 지배인 최영보동무도 있다.

몇해전 지배인으로 임명된 최영보동무가 건설현장에 가설건물을 짓고 현장사무실을 전개하던 날 로동자들은 무랍없이 말했다.

《지배인동지, 사무실을 이렇게 현장가까이에 설치하면 기계소음때문에 일을 보기 힘듭니다.》

기중기며 혼합기소리가 요란스레 울리는 건설현장을 바라보며 최영보동무는 웃음속에 말했다.

《왜 기계소리만 들린다고 그러오. 여기 앉아있으면 동무네 말소리까지 다 들린단 말이요.》

정말이지 그 사무실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 세멘트창고지붕이 낡아서 비가 샐수 있다는 창고원의 근심어린 목소리도, 철근조립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는 로동자들의 열띤 론쟁도 들을수 있었다.

어느 작업반의 제대군인총각이 함께 일하는 혁신자처녀와 사랑을 약속했으며 또 어느 일군의 안해는 오래동안 앓는데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것 같다는 소리도 제일먼저 들려왔다.

그 모든 목소리를 사업수첩에 적어넣고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가며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곧 최영보동무의 사업과정이였다.

어느해 추석을 앞둔 날 저녁이였다.

현장사무실창문가에서 퇴근길에 오르는 로동자들을 바라보던 최영보동무의 눈에 머리를 숙인채 걸어가는 여러명의 청년들이 보였다. 학원을 졸업하고 사업소에 새로 배치된 청년들이였다. 추석날 합숙생들인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최영보동무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다음날 아침 최영보동무가 성의껏 마련한 음식들을 안고 합숙으로 찾아왔을 때 김정철, 김효성동무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가.

최영보동무는 자책어린 어조로 말했다.

《내가 사무실은 현장으로 옮겨왔지만 아직 동무들의 마음속가까이에 자리를 정하지 못한것 같구만. 미안하오.》

그의 말에 청년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배인의 인정미에 마음이 끌린 청년들은 아무때나 지배인을 찾아 현장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부터 최영보동무는 화물차에 싣고다닐수 있는 이동식현장사무실을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짐함을 개조하여 창문과 출입문을 달고 크지 않은 책상과 여러개의 걸상을 들여놓은 자그마한 사무실, 화물자동차적재함에 실려 오늘은 산기슭의 살림집건설장으로, 래일은 바다가의 물놀이장건설장으로 옮겨지는 그 사무실을 로동자들은 우리 집이라고 정답이 부른다.

누군가 비좁은 사무실에서 일하기가 힘들지 않은가고 물었을 때 최영보동무는 말했다.

《어머니는 자식곁에 있어야 마음을 놓는 법이지요.》

오늘도 최영보동무는 우리 당이 라선시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재부인 물놀이장건설장에 자기의 전투좌지를 옮겨놓고 꺼질줄 모르는 혁신의 밑불이 되여 로동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승철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설비현대화도 결국은 사상전이다

회령대성담배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대화에 대한 시대적요구가 달라졌다.

오늘날 일군들, 특히 인민경제 한개 부문, 한개 단위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 일군들은 현대화사업을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대해야 하며 또 종업원들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

회령대성담배공장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이에 대한 시사적대답을 주고있다.

자금문제가 아니다

해당 단위 현대화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 론하자면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내세운 현대화목표부터 분석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화에 림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입본새가 바로 여기에 뚜렷이 비끼기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회령대성담배공장 일군들이 내세운 제품완성공정의 현대화목표를 투시해볼 때 주목되는 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래전부터 리용해오던 수십대의 재래식설비들을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현대화하고있는것이다.

물론 공장에는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3직장이 있다. 하지만 지도국과 공장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질좋은 제품생산을 더욱 늘일 결심을 하였다. 그렇게 하자면 이미 있는 현대적설비들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로부터 시작된것이 수십대의 재래식설비들을 현대적설비들로 개조하는 투쟁이였다.

한해전 이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었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아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이나 다름없었던것이다.

일리가 있다. 공장은 특성상 원료입하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대단히 복잡하다. 특히 제품완성공정은 구조와 동작원리가 매우 까다롭고 초정밀화된 설비들로 갖추어져야 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런 조건에서 수십년전 재래식설비들을 현대화한다는 그자체가 현대적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로 만들어내는것과 맞먹는 대단히 어려운 두뇌전, 기술전이였다. 이로 하여 초기에 기술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일군들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새 설비들을 구입해오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것으로 여기였다.

설비구입에 드는 자금은 실로 막대했다. 결국 그것은 나라에 큰 부담을 끼치는 일이였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공장책임일군들은 그 길을 택할수 없었다. 머리를 쓰지 않고 손쉽게 들어선 길에서 설사 무엇이 얻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어찌 제정신과 제힘이 깃든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내놓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수십대의 재래식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목표가 높다고 하여 방도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일군들이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을 체질화하는것도 그러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실천이다.

지도국일군인 강철호동무와 지배인 김성재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뒤짐을 지고 돌격구령이나 친것이 아니라 앞채를 메고 화선지휘관이 되였다. 그들은 기술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설계도면도 작성하였고 제기되는 부속품, 자재보장을 위해 먼길도 수없이 다녔다.

드디여 수십대의 재래식설비들을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빠른 기간에 현대화할수 있는 결정적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초보적으로 타산해보아도 여기에 드는 자금은 수입하는것에 비해볼 때 훨씬 적었다.

하지만 일부 정밀부속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담보는 의연히 희박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절약된 자금만도 대단한것으로 여기면서 정밀부속품들만은 수입해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심각한 문제였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그 부속품들의 수입에 드는 자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쯤한것이야 허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릇된 관점이였다.

지도국책임일군인 박영진동무가 명백히 선을 세웠다.

《자금이 많고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에 대한 의존심이 싹트고 자라나면 자립성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나중에는 민족적자존심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눈뜨고 사대매국노가 되는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는 한치의 탈선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심각히 깨우쳐준 이야기였다.

현재 재래식설비들의 현대화사업은 결속단계를 가까이하고있다. 얼마전 일부 설비들에 대한 무부하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또 한번 큰 힘을 얻었고 마지막직선주로에 들어서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게 될 오늘의 시대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에게 호소하고있다.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라!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는 단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주인의 자격

어느 생산단위에 가보아도 생산공정마다에 갖추어진 설비들은 물론 거기에 붙어있는 종업원들의 이름을 볼수 있다. 하다면 기대앞에 위치를 정했다고 하여,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일터의 주인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주인의 자격을 론하는 기준이 새로와졌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래일에 가서는 오늘이 또 아득한 과거로 되는 지식경제시대에 현대과학기술을 부단히 습득하지 않는다면 일터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없다.

하다면 종업원들의 앞장에는 누가 있는가. 다름아닌 일군들이다.

하루빨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일터를 올려세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만이 아니라 종업원들도 당당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야 할 임무를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우고있다.

공장일군들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는것을 놓칠수 없는 고리로 틀어쥐고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 1차 진행하는 기술학습이나 현장기술학습부터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화사업과 동시에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는 사업이 벌어질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현실은 모든 기대공들이 설비들의 조작방법은 물론 그 동작원리, 나아가서는 그것을 현대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손금보듯 파악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다시 말하여 앞으로 현대화된 설비를 다루는 과정에 어떤 기술적문제가 제기되고 간혹 이상요소가 나타나도 제손으로 척척 퇴치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종업원모두를 준비시키자는데 일군들이 노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장일군들은 기술자, 고급기능공, 신입기대공들로 구성된 많은 조를 무었다. 다음 그 매개 조가 3직장 생산현장에서 실천적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기술자는 설비들의 동작원리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고급기능공은 또 설비들을 다루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경험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것은 기술자와 고급기능공들사이의 호상협력을 강화할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주었으며 신입기대공들도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울수 있게 되였다. 결국 그것은 과학적리론과 현장경험의 가장 신속한 실천적결합을 낳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일군들은 그에만 그치지 않았다. 재래식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도 공장기술자들은 물론 고급기능공, 신입기대공들과 고급기능공들간의 협동작전을 광범히 벌리도록 하였다. 결과 이들은 두대의 가공설비를 가지고 그 어떤 규격과 종류의 부분품들도 척척 가공해낼수 있게 되였다. 이것이 벨트콘베아의 제작 및 설치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주인의 자격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일터의 주인은 다름아닌 현대적과학기술의 주인이다. 과학기술의 봉마에는 누구나 오를수 없다. 생산과 과학기술, 이 말을 하나의 의미로 가슴에 새길줄 알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로, 자기자신의 요구로 내세울줄 아는 사람들만이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달리는 그 봉마의 기수로 될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사상으로 종업원들을 무장시키고 앞장에서 그들을 이끄는 일군들의 실력이다.

* *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론은 모든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모든 사업의 종자와 방법론을 사상에서 찾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해나가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창조된다.

회령대성담배공장 일군들은 지금 현대화의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보다 큰 실적을 안아오기 위해 대오의 앞장에서 뛰고있다. 그들의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본사기자 김충성
본사기자 리영민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위대한 령장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최근년간의 국제적사변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에 맞설 힘이 없어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고 류혈과 붕괴의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것은 얼마전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가 《자주의 보루》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의 내용이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는 글에서 조선의 천만군민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하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제 마음대로 날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의지로 충만되여있을뿐만아니라 그를 실현할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조선이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것은 단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뿐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크지 않은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뿐아니라 세계평화수호에 이바지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한시도 생각할수 없다.

지난 세기 말엽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군사적공세와 압박을 강화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엄혹한 조건과 최악의 역경속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나가시였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그이의 령도따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자주적근위병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하기에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와 격찬의 목소리를 높여가고있다.

딴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대리 민 테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 세계평화와 안전, 자주화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걸출한 수령,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일심단결을 보다 굳건히 다지시였으며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로씨야신문 《쁜꾸렌뜨》는 《평화수호자의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침략책동과 전횡을 짓부시고 지구상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력사에 불멸의 한페지로 아로새겨져있다.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여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확고한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출한 기상과 신념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조미핵대결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조선은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로 위협하던 시대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세계평화수호에 이룩하신 공적은 인류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짐바브웨신문 《헤랄드》는 《평화를 위하여 쌓으신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권, 전횡을 짓부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분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서버리시였으며 조미핵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또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위업전반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세계평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깜뽀스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력사에는 인류의 진보적발전에 공헌한 위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정일각하와 같이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력을 지니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그이의 업적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의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지난 세기 말엽 제국주의자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을 기화로 〈사회주의완전종말〉을 운운하면서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하여 조선의 자주권과 안전은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조선반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가장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장으로 되였다.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없애려던자들의 기도는 실패와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세계사회주의위업도 위기에서 구원될수 있었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렇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듯이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보장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찬란히 빛나고있다.

하기에 세계는 확신하고있다.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반미대결전마다에서 승리만을 떨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리라는것을.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이다.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끝끝내 불질한다면 그 기회에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전쟁의 원흉, 악의 소굴을 송두리채 없애버릴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 조선전쟁은 미국의 완전종말을 가져올것이다.》

김 국 철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필승의 담력

마쟈르정계인사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령장으로서의 담력을 칭송하여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류르매르 쥴라가 11월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지도자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의 담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2012년 12월 조선의 첫 실용위성발사를 걸고 벌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도발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으며 제3차 지하핵시험도 단행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에 대한 전략로케트군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종비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국의 최첨단군사장비들과 초정밀감시기구들이 배치되여있는 관문점을 시찰하시고 근무수행중의 군인들까지 다 교대시키면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2014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때도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쉬파리떼가 덮여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령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조선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이며 영용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가 적들을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필승의 담력을 지니고계신다. 그이께서는 2015년 1월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발기하고 지도하시면서 조선은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이 언명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 루이스 엔리께 곤쌀레스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11월 23일 박창을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의 담화석상에서 최근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계속 외면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결정적으로 끝장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다른 문제들도 풀릴수 있다.

우리 통신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는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또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국제민용항공의 날

국제민용항공기구는 민용항공분야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절통제하고 협조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창립된 유엔전문기구이다.

1944년 12월 7일 미국의 시카고에서 52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 국제민용항공분야의 발전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국제민용항공에 관한 협약(일명 시카고협약)을 채택하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1947년 4월 상기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가 공식 발족하였다. 기구소재지는 카나다의 몬트리올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항공기제작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항공운수분야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에 맞게 기구는 전세계적으로 국제민용항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평화적목적을 위한 항공기의 설계와 기술을 장려하는것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왔다.

1992년 국제민용항공기구총회는 《시카고협약》이 채택된 날인 12월 7일을 국제민용항공의 날로 정하였다. 그후 유엔은 모든 나라 정부들과 지역 및 국제기구들이 이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년간 국제민용항공기구는 국제민용항공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장성을 보장하는것, 항행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없애는것, 국제항공운수의 계획화 및 운영을 촉진시키는것 등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활동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기간 민용항공부문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왔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1955년 9월 21일 민용항공총국(당시 조선민용항공국)이 창립된것은 우리 나라 민용항공부문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계기였다.

1977년에 국제민용항공기구에 가입한 우리 나라는 오늘까지 기구성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올해에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우리 나라 항공운수부문의 발전전망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는 주체적항공운수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국제민용항공사업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피에 절은 아메리카합중국의 성조기

오늘 이 지구상에는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미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피가 흐르고있다. 형성과정이나 걸어온 행로로 보아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피에 절은 식인종나라이다. 인디안들을 대량살륙한 땅에 뿌리박고 아프리카흑인노예들의 피땀으로 생겨난 살인왕국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그처럼 자랑하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성조기는 침략과 살인의 상징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시적강점지역들에서도 인류력사상 가장 야수적이고 잔악한 방법으로 무고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하는 짐승도 낯을 붉힐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미제의 신천대학살만행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은 빨갱이종자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하면서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1950년 12월 7일, 미제는 신천군 원암리 밤나무골 화약창고에 무고한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가두어놓고 이곳을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참혹한 죽음의 페허지대로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있는것은 너무나도 행복하다, 당장 떼내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찾아 애가 타 죽게 하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찾아 간이 말라 죽게 하라고 지껄이였다. 배고파 우는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물대신 휘발유를 뿌려 그것을 먹고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그들의 머리우에 불몽치를 던졌다. 나중에는 수류탄으로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910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악귀같은 미제침략자들은 사람들의 머리에 대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죽이였는가 하면 눈알을 뽑고 머리를 톱으로 켜죽이는 등 중세기의 교형리들도 무색할 야수적방법으로 2개월도 못되는 강점기간에 군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의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신천땅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침략자 미제야말로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은 1951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들을 조사하면서 《미국이 림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림시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온 불구대천의 원쑤, 백년숙적이다.

진보적인류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가져다준 미국의 범죄적인 만행들을 잊지 않고있다.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였다. 그것은 하나의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멸살전쟁이였다. 여기에 미제가 감행한 조선전쟁의 범죄성이 있다.

미제가 제놈들이 저지른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아무리 교활하게 놀아대도 이 땅에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수 없다.

오늘 신천은 천인공노할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 복수의 철추를 내리는 력사의 심판장으로 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잔인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세상을 경악케 한 히틀러도배들이 현대과학기술을 도용하여 공업적방법으로 대량학살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짐승도 낯을 붉힐 살인만행을 제손에 피를 묻히며 거리낌없이 감행한 미국놈들이야말로 히틀러도배들을 훨씬 릉가하는 야만의 무리이며 정신착란증에 걸린 두발가진 승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디안의 해골더미우에 독버섯같이 돋아난 미제는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략탈로 배집을 늘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원리로 길들여지고 인간도살을 유희로, 도락으로 삼는 미제의 피비린 살륙만행은 오늘까지도 세계도처에서 계속 감행되고있다. 9.11사건이후에만도 미국은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라크에서는 2003년부터 5년동안 미군에 의해 120만 5 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고 100만명이 실종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1년 한해동안에만도 3 000여명이 미군의 《반테로전》의 희생물로 되였다. 《테로기지소탕》이라는 미명하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된 미국의 무인기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미국이 세계도처에 검은 마수를 뻗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반테로전》이 전대미문의 국가테로범죄, 특대형인권침해행위라는것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시퍼런 대낮에 백인경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죽이고 목을 눌러죽여도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어느 한 시에서는 경찰이 부당한 험의를 들씌워 흑인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도 성차지 않아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그에게 사격을 가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경찰의 총에 맞은 흑인청년은 위독한 상태에 있다가 끝내 숨지고말았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실지 미국경찰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의 수가 한해에 1 100명, 하루에 평균 3명에 달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에 항거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있다.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와 지역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각종 인종주의범죄가 만연하고 경찰들이 무방비상태의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국가, 인권유린국가는 없다.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이 그 무슨 《인도주의》와 《자유보장》, 《만민평등》을 부르짖으며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불모지이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력사는 어느때든 미국이 감행한 반인륜적범죄를 엄정하게 심판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팔레스티나인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탄압만행

필리핀재판소 살인범죄를 감행한 미해병대원에게 징역형 언도

필리핀재판소가 살인혐의로 체포된 미해병대원에게 1일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지난해 미국—필리핀합동군사훈련의 명목밑에 이 나라에 들어왔던 미해병대원 펨버톤이 필리핀녀성을 무참히 살해한데 대해 밝히고 그에게 12년까지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당시 19살 난 펨버톤은 필리핀녀성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번기에 처박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 끔찍한 살인행위만을 일삼는 미군에 대한 필리핀주민들의 원성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정세악화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세계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문제가 의연 심각하다. 팔레스티나인들과 이스라엘경찰들사이의 폭력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있다. 이스라엘은 강점정책과 폭압에 항거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을 《테로분자》로 묘사하면서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하고있다. 이스라엘군과 경찰들은 항의시위를 벌리는 팔레스티나인들을 즉석에서 총으로 쏘아죽이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만도 이스라엘병사들이 쏜 총에 맞아 수천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지금 국제사회는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인들의 분노의 감정과 서로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파쑈적인 폭압만행이 예측할수 없는 류혈참극을 빚어낼수 있기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정세안정에 이바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지역정세는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길로 나가고있다. 정세완화가 아니라 악화의 길로 나가고있다.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우선 이스라엘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는데 있다. 이스라엘은 어제나 오늘에나 힘을 유태복고주의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만능의 수단으로 보고있다. 무력으로 팔레스티나인들의 독립국가창건의지를 짓누르고 그들의 땅에 《유태국가》를 세우겠다는것이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팔레스티나인들이 강점정책에 항거해나설 때마다 총과 대포로 막아나서고 보다 강도적인 강점정책들을 실시하는것이다.

얼마전 이스라엘수상은 동부꾸드스에 400여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최종승인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최고재판소는 항의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의 주택을 철거시키는것을 정식 승인하였다. 정세가 지금과 같이 폭발전야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이 강도적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취한것은 그들이 긴장완화를 전혀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더욱 복잡해지고있는 원인은 또한 미국의 그릇된 대중동정책에 있다. 지난 세기 중엽 팔레스티나령토에 호전적인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하여 지역에 불화의 씨를 뿌려놓은 때로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을 저들의 중동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고있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봉쇄 및 군사적침략, 유태인정착촌확장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일으키고있는 모든 불집은 미국의 정치적비호와 군사적후원의 산물이다.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하면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령토팽창야망을 적극 추동질하고있다. 류혈적인 분쟁이 한창 고조를 이루고있던 지난 11월 9일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를 백악관에 불러들인 오바마는 강점정책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을 비난하면서 《유태국가》를 공고화하기 위한 꿍꿍이를 벌려놓았다.

오바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동맹관계를 맺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군사적지원을 계속해줄것을 언약하였다. 얼마전에는 미국무장관 케리가 《중재》의 미명하에 중동으로 날아갔다. 네타냐후를 만난 자리에서 케리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항쟁을 《테로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는 팔레스티나대통령 아빠스를 만나 저들이 지역의 평화보장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생색을 냈다.

케리의 행동을 보면 말이 중재이지 실지는 완전히 이스라엘편에 서서 그들의 편역을 들어주었다. 하기는 미국의 《중재》라는것이 이스라엘의 역성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증명되고도 남았다.

유엔무대에서만도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을 비호두둔하고 팔레스티나의 독립국가창건을 가로막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리가 이번에 또다시 중동에 코를 들이밀고 《중재역》을 논것이야말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오죽했으면 팔레스티나의 한 고위인물이 케리의 지역방문과 그가 진행한 회담들이 단순히 선전활동에 불과하다고 평했겠는가.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역의 정세가 항상 첨예한 상황에 놓여있는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미국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기인된다.

중동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배주의적책동의 쓴맛을 단단히 본 지역이다. 동시에 그들에 대한 원한과 울분이 하늘끝에 사무쳐있는 지역이다.

지금 팔레스티나인들은 이스라엘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성전을 끝까지 벌려나갈 각오에 충만되여있다. 이스라엘의 강점하에서 태여나 강점자들의 갖은 학대를 받으며 성장한 팔레스티나의 젊은 세대가 투쟁의 앞장에 나섰다.

중동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티나와의 련대를 강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을 규탄해나서고있다.

이스라엘이 사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미국이 여기에 계속 키질을 하는 경우 그들은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이것은 법칙이다.

본사기자

미국간첩문제를 통해 본 이란의 강경립장

이란이 자국에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미국인에게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레자이안이라고 하는 문제의 인물은 이란주재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특파원의 명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7월에 체포되였다.

그는 테헤란에 주재하는 기간 기밀정보들을 내탐하고 반국가활동을 벌리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되여 여러차례에 걸치는 재판끝에 형을 받았다.

이미 이란에는 레자이안을 내놓고도 여러명의 미국인이 간첩활동을 한것으로 하여 구금되여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레자이안이 체포되였던것이다.

그가 붙잡히자마자 미국은 이란이 억류하고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한창일 때에도 미국인석방문제를 제기하였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번에 레자이안에게 징역형을 언도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이란의 립장과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란은 이번 일을 통해 핵합의가 이룩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시사하였다.

이란이 이처럼 강경자세를 취하고있는것은 미국이 핵합의의 막뒤에서 여전히 이란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일삼고있기때문이다.

이란핵합의가 이룩된 후 미국은 그 무슨 《협조의 기반》이 마련되였다느니, 《해빙기》가 도래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관계개선》을 떠들어댔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현 정부를 뒤집어엎고 반미자주적립장을 꺾어버리기 위한 음모책동에 매달려왔다.

미국관리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행동을 취할것이라고 떠벌이였는가 하면 이란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에 대해 운운하였다.

미국정계의 강경보수세력들은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시킬수 없다느니, 대이란제재가 해제되게 되면 이란의 국력은 더욱 강화될것이고 나아가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위협으로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대결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이란인들의 사상과 신앙,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에 대한 강경조치들을 취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란은 반정부인물들을 부추기고 간첩암해분자들을 침투시키는 등 자국의 안전을 해치려는 미국의 비렬한 음모책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있다. 이것은 이란이 혁명이 승리한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온 원칙이다. 1979년 11월에 모략과 음모의 소굴이였던 미국대사관을 통채로 들어낸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란은 적지 않은 미국간첩들을 적발체포하였다.

이란정보성 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최근에 또다시 미국의 후원밑에 자국의 동남부와 서북부지역에 침투하여 반정부파괴음모를 시도하던 2개의 테로집단을 소탕하였다고 한다.

이란이 미국의 음모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강경대처해나가고있는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내부와해책동과 반정부음모책동의 위험성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기간 미국의 음모책동의 산물로 발생한 《아랍의 봄》과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색갈혁명》들은 이란을 더욱 각성시켰다.

각성을 높이자, 이것이 핵합의후 이란이 취하는 립장이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카메네이가 한 발언이 국제사회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을 저들의 요구를 들이먹이기 위한 공간으로 삼고있다, 미국과의 회담은 이란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와 안전체계에 대한 미국의 침투로 될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최근 이란고위성직자는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침투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핵합의가 이룩된 후 미국이 이란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들에 침투하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까밝히면서 전쟁보다 더 위험한 적들의 이러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자국에 대한 문화적침투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란정부와 인민은 적들의 그러한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이를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11월 4일 테헤란에서 미국대사관점거투쟁 36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반미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각계각층 군중은 미국은 거대한 악마이며 오만한 세력파의 싸움은 정당한것이라고 하면서 전세대의 투쟁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여론들은 이날의 반미집회를 두고 이란인들속에서 여전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가셔지지 않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고있다. 이번에 미국간첩 레자이안이 징역형을 받은 사실도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란의 강경한 태도는 이란과 지역에 대한 미국의 침투책동, 지배주의정책을 걸음걸음 좌절과 패배에로 몰아가게 될것이다.

지배와 예속을 전제로 하는 관계개선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앞으로의 이란—미국관계가 이것을 보여줄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ㄱ-51192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